



##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작은 보람

김 조 연

대구광역시 중구청 세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개인 홈페이지를 오픈 한지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났다.

내가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니 꼭 1년이 된 것 같다.

입문전 인터넷상에서 남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홈을 보면 참 잘 만들었다거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막연히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었다.

그런데 나에게도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수원에서 3개월간의 홈페이지 교육과정이 있다길래 냅다 신청부터 했다.

그러나 3개월간의 교육과정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것도 야간에 두시간씩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서 고통의 시간이었다.

술을 좋아해 친구들과 종종 술잔을 기울

이며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직장일 등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술이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하곤 하던 좋은 버릇(?)도 고쳐야만 했다.

워낙 컴맹인 나로써는 홈페이지 제작에 필수적 프로그램인 플래쉬나 포토샷은 그 기능을 금방 배워도 다음날이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강사는 내 질문에 싫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뿐이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애플릿을 공부하다가 잘 안되는 것이 나오면 아무리 밤이 늦어도 강사덕으로 전화를 했으니 오죽 내가 거추장스러웠을까!

난 교육중인 지난해 11월, 비록 졸작이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을 처녀작을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때는 왜 그렇게 기분이 날듯이 좋았는

지 모른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라는 얼마나 하였는가.

그 졸작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작업하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방세 홈페이지가 많은 상황에서 세외수입 관련, 최고의 홈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비록 보잘것 없지만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홈페이지를 오픈한 것이 지난 5월 초.

야후, 다음, 네이버, 심마니 등 국내 여러 검색사이트에 등록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리니 가장 먼저 검색 가능하다는 메일이 온 것이 국내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야후였다.

그 때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선을 보인지 5개월만에 조회수가 벌써 4만을 훌쩍 넘어섰고 일부 뉴스의 경우 조회건수가 수천건을 넘는 등 갈수록 찾는 사람이 늘고 있으니 정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홈페이지 개설당시 어느 지방세 사이트에 더부살이 시키다 두달전 문을 연 질의 코너에는 온갖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 건 외에 참으로 명쾌하게 답변하기 곤란했던 질문 두가지를 소개할까한다.

9월초 한 방문자는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몇가지를 물었다.

속도제한 시속 60km인 도로에서 30km 초과해서 달린 것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고 했다.

이 경우 벌점은 얼마인지, 또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가 나오면 벌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것이 사실인지, 벌점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이 무척 궁금하다면서 꼭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다시피 속도위반 단속은 경찰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질의자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되도록 답변할 수 있으랴.

그렇다고 내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마운 손님인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무성의해 보였다. 그래서 경찰서로 전화하니 지방청에서 관장한다기에 다시 지방청으로 전화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문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게재했더니 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글을 올려 놓았다.

또 한 사례.

방문자는 600여평의 논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공사업(도로건설)용으로 토지일부(470평)가 편입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130여평이 애물단지라고 하소연 했다.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해도 주변환경을 봐서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위치라 고민중이라고 했다.

잔여토지매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매수 평수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 꼬치꼬치 물어 답변해 준 기억이 난다.

특히, 과태료 관련 질의는 수없이 많은데, 밤에도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차량 상속이전을 안했는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를 체납했더니 부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는 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등.

개인홈페이지란 특성 때문인지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문의한다”는 울분형부터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묻는 세도형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답변하기도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개인 홈페이지라지만 인터넷상에서 그 것도 수십 수백명이 읽어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덕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질문 하나 하나에 무척 신경을 쓴다. 아직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보도 빈약하거니와 아는

것이 일천해 제대로 답변해 주지 못하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니 홈 운영자 입장에서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때론 바쁜 업무 등으로 내용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할 때도 많아 애용자들에게 항상 미안한 감을 느낀다.

관리할 시간이 없고 불품없는 홈페이지란 이유로 폐쇄해야겠다는 마음을 한두번 먹은 것이 아니었지만 “무료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니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등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기에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운영하리란 다짐을 해본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hollian.net/~jang2437>

